

SK · 롯데, 2006년 인력채용 미정

인크루트, 2만3700명으로 2.4% 증가 ... 삼성 3000명에 LG 3400명

10대 그룹의 2006년 채용이 2005년보다 증가한 2만37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삼성, LG 등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06년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계획을 정한 8개 그룹은 2006년 2만11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2005년 2만600명보다 2.4% 증가한 수준이다.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SK그룹과 롯데그룹이 200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채용하게 되면 2006년 10대 그룹은 2005년 2만3300명보다 다소 증가한 2만3700여명을 채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은 상반기에 공채를 통해 2005년 상반기 2400명보다 많은 3000명 이상의 사원을 뽑을 계획이다.

하반기 공채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삼성그룹의 채용규모는 2005년 83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LG그룹은 상·하반기 각각 3400명, 3100명씩 모두 65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을 계획으로 2005년 6200명보다 4.8% 증가한 수준이다.

2005년 1400명을 뽑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100명 가량 늘어난 1500명을 신규로 충원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인 1400명을, 두산그룹은 사업 확장을 위해 2005년 600명보다 많은 인원을 각각 충원할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그룹은 4-5월과 9-10월 각각 350명, 650명씩 총 10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화그룹과 CJ그룹은 2005년과 비슷한 각각 800명, 1000명을 2006년 새로 채용할 계획이며 롯데그룹과 SK그룹은 아직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전체 채용의 60%는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라며 “채용이 늘더라도 삼성, LG 등이 자사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 채용방식을 바꾸고 있어 실제 취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3/09>